

# 레미콘 22일부터 멈춘다

## 시멘트값 인상 반발 무기한 파업 ... 광주·전남 90여개 업체 동참

### 여수 엑스포·나주 혁신도시 조성 차질 우려

일방적인 시멘트값 인상에 반발해 레미콘업체가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지역 90여 레미콘업체도 파업에 동참하기로 해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 엑스포와 나주 혁신도시 조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31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소속 전국 중소 레미콘업체 대표 60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레미콘업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조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정환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

업들의 일방적인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22일부터 조업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쌍용양회와 동양시멘트 등 대기업 시멘트 공급업체는 지난달 1일자로 t당 시멘트 가격을 종전 6만7500원에서 7만7500원으로 14.8% (1만원)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달 중순께 거래 중인 레미콘업체에 일제히 시멘트 가격 인상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미 지난해 6월 1일 시멘트 가격을 t당 5만2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30% 인상했다. 이번 인상으로 7개월만에 49%인 2만5500

원을 올린 셈이다.

이에 대해 레미콘업계는 “사전 협의 없이 레미콘의 주 원료인 시멘트 값을 큰 폭으로 인상한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사형선고와 같다”면서 “시멘트 값 말고도 골재비·운반비 등이 오르면서 중소 레미콘사들은 고사 직전에 몰렸다”고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시멘트 가격 인상분을 건설사에 반영해 달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형 시멘트사·건설사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중소 레미콘업체들의 경우 시멘트가격 일방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연체 부도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환기자 jwpark@kwangju.co.kr

는 94개의 레미콘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같은 사실을 긴급공사발주처를 비롯한 건설사들에 알리는 한편, 시멘트 업체들과 가격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엑스포의 마무리 건설 현장과 본격적으로 건설되는 나주 혁신도시의 이전기관 청사 건립, 광주 첨단지구 등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민간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화토건 코스닥 상장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오전 서울사무 종합홍보관에서 건물건설업 전문업체인 남화토건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장기념패 전달 후 김원식(왼쪽부터) 코스닥협회 부회장, 진수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독자신용등급’ 도입...재벌 계열사 비상

### 정부·모기업 지원 배제...채무상환 능력만 평가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고 개별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만을 평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독자신용등급(Stand-alone rating)’ 도입이 임박했다.

이 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 계열사의 경우 모기업의 지원 능력을 고려해 비슷한 재무구조

의 개별기업보다 2~3단계가량 등급이 높게 매겨져 왔기 때문이다.

31일 금융당국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평가사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팀은 다음 달 9일 ‘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독자신용등급 도입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최종안 마련을 앞두고 열리는 의견수렴 자리라는 점에서 독자신용등급제 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신용평가제도개선 TF팀은 3개월 넘게 독자신용등급을 포함한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독자신용등급 도입 움직임이 또 다른 방식의 ‘대기업 패러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편법증여 등 반사회적 탈세 엄단

### 국세청, 약자는 배려

국세청의 2012년 세무조사가 어느 때 보다 공정·투명해진다.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두 차례의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현실을 염두에 둔 판단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유층의 편법증여, 국외펀드를 가장한 우회투자 등 ‘가진 자의 탈세’를 정초준할 전망이다.

31일 국세청은 전국 조사분야 핵심 간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갖고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을 결의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 걱정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과 유사한 1만8000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고 조사 인력이 한정돼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세무조사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대) 납세자와 사채, 전문직

등 과세 취약분야에 집중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중소기업·서민 세무조사 축소다. 2010년 기준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44만개 중 41만개(94%)인 중소기업만을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기업,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낮은 조사비용 유지, 조사선정 제외 등 우대하기로 했다.

일자리 3%(중소기업), 5%(대기업) 늘리는 기업은 2013년 말까지, 지방기업은 2014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 차원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서민경제를 침해할 탈세 사업자는 엄단 할 방침이다.

수입원가·관세 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에도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과 사채, 단단계 판매 등 불법·폭리 행위 업종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다.

와인 주류 수입업체와 커피 유통업체, 쇠고기·돼지고기 유통업체 등 6개 사업자가 시범사례로 정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기업 도전정신 어디갔나

### 지난해 5월이후 벤처기업 850개 줄어

벤처창업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작년 5월이후 벤처기업의 수가 850개 가까이 줄었다. 정보기술(IT) 버블 사태가 벌어졌던 2002~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핵심 기술을 보유한 석·박사 출신 고급인력들의 고품질 벤처창업이 줄어 벤처창업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외 경제불안으로 창업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적인 도전정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이 우리사회에 광범해졌기 때문이다. 31일 한국거래소와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현재 벤처기업의 수는 2만6148개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벤처창업 열기는 급속히 식고 있다.

작년 5월 283개가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6월 400개, 9월 126개,

12월 228개 등 5월이후 848개가 순감했다. 작년 1~4월까지만 해도 2351개나 늘어났던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이다.

작년 전체적으로도 벤처기업은 6.10% 증가에 그쳐 2004년(3.44%)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냈다. 벤처기업의 증가율은 2005년 22.15%, 2006년 25.54%, 2007년 14.71%, 2008년 9.89%, 2009년 22.67%, 2010년 30.35% 등이었다. 리먼사태가 발생했던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면 20% 이상을 줄곧 유지했다.

석·박사 출신들의 벤처창업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작년 5~7월 2개월간 2천여개 표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박사가 대표이사인 기업의 비중은 9.4%로 10% 아래로 떨어졌다. 2009년만 해도 13.0%에 달했다. 2010년에도 10.1%로 10%를 못돌았다. /연합뉴스

### 금호타이어 사장 김창규씨

### 아시아나HDT 사장 황선복씨

### 금호아시아나그룹 인사

금호타이어 사장에 김창규(58) 아시아나HDT 사장, 아시아나HDT 사장에 황선복(58) 그룹 전략경영실 부사장이 임명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사장단 및 일부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제주 출신으로 오토품과 성균관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금호실업에 입사해 금호타이어 두바이지사·해외영업팀, 인천공항에너지, 금호석유화학을 거쳐 금호리조트 대표이사, 금호개발공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서울 출신인 황 사장은 숭문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산업은행 평가리빙인장을 지냈다. 2008년 그룹 전



김창규 사장 황선복 사장

략경영본부 금융담당으로 금호와 인연을 맺었다.

이밖에 박상배 아시아나HDT 부사장은 금호리조트 부사장으로, 서재환 대한통운 부사장은 그룹 전략경영실장(부사장), 류성택 금호고속 전무는 아시아나HDT 전무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이송호 금호고속 부장은 상무보로 승진했다. /박정환기자 jw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995.79 (+15.24)
▲ 코스닥지수	513.99 (+3.66)
▲ 금리 (국고채 3년)	3.38% (+0.02)
▼ 원·달러 환율	1123.30원 (-4.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Le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중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 2012년 CUSCUS ART HOUSE

#### 쿠스쿠스 패밀리 레스토랑

광주 수완점 062-371-0011	광주 신세계점 062-360-1981	광주 상무점 OPEN 예정
------------------------	-------------------------	-------------------

쿠스쿠스: 광주 수완점  
 체인점 문의: 062)371-0011  
 체인점 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